오늘의 유머

■형제의 다툼

10대 형제가 심하게 다툼을 벌여 며칠 동안 얘기를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엄마가 생선 요리를 하면서 큰 아들에게 재료를 좀 가져다 주라고 부탁했다.

큰 아들이 말했다.

" 우리 1주일에 한 번은 생선을 먹기로 해요."

"하지만 동생이 생선을 싫어하잖니?"

그러자 큰 아들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말했다.

"그럼 1주일에 두 번 먹기로 해요."

■남자의 매형

어떤 남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 간호사가 와서 남자에게 말했다.

"중상이 아니라 곧 회복될 테니 안심하세요."

"그런데 저는 혼자 사는 놈인데 의료보험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친척도 없나요?"

"없습니다. 단지 노처녀 수녀인 누님이 한 분 계십니다."

"수녀는 노처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결혼하신 분입니다."

얘기를 들은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잘 됐군요. 치료비를 나의 매형에게 청구해 주십시오."

■아내의 바가지

걸핏 하면 다른 집 남편과 비교하면서 바가지를 긁는 아내가 있었다.

"당신은 하는 일이 되는게 없어요. 옆 집 박사장은 하는 일마다 술술 풀려 대박을 터트리잖아요!"

"그야 당연한 일인 아닌가?"

"어찌 당연하다는 말이 그렇게 쉽게 술술 나와요!"

"당신도 생각해보구려. 박사장은 큰 마누라, 작은 마누라에다 최근에 또 젊은 마누라를 얻었다는데. 그래 세 여자의 조언을 듣는 사람과 나처럼 당신 한 사람의 조언을 듣는 사람 중에 누가 성공 확률이 높겠소?"

■염라대왕의 실수

어떤 부인이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갔다. 그녀는 혼수상태에서 염라대왕을 만나게 됐다.

"염라대왕님, 제 인생은 이제 끝이 난건 가요?"

염라대왕이 기록을 살펴본 뒤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실수가 있었나 보다. 앞으로 40년 더 남았느니라. 다시 돌아가거라."

그렇게 다시 제 2의 인생을 살게 된 여자는 멋진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성형 수술을 해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했다.

그러나 성형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퇴원하게 된 날 여자는 병원을 나서다 차에 치여 목숨을 잃고 말았다.

저승으로 간 여자가 염라대왕에게 따지며 물었다.

"아직 40년이 더 남았다면서요!"

그러자 염라대왕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미안하다… 그대를 못 알아봤느니라."

■걸인과 행인

한 걸인이 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 행인이 걸인에게 동전을 주면서 말했다.

"당신은 멀쩡한 사지를 가지고도 왜 일은 하지 않고 구걸을 하시오?"

그러자 걸인이 깜짝 놀라며 대답했다.

"그럼 당신이 주는 동전 몇 푼 때문에 내 양팔을 자르란 말이오?"

■그러니까

변호사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가 동네 생선가게에 난입하여 싱싱한 생선 한 덩어리를 물고 달아났다.

생선가게 주인은 변호사 집으로 찾아갔다.

"만약에 어떤 고양이가 생선가게에서 생선을 훔쳐갔다면 그 고양이 주인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거요?"

"물론이죠"

"그렇다면 만원 내슈, 댁의 고양이가 우리 가게에 와서 생선을 훔쳐 갔수"

변호사는 말없이 생선가게 주인에게 돈을 내줬다.

며칠 후 생선가게 주인은 변호사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었다.

변호사 상담료 : 10만원 청구함!

리빙 센스

피부 관리법 – 물 마시기②

1. 취침 전 물 마시기

수면 중에는 땀을 흘리게 되는데 땀이 마르면서 피부의 수분도 함께 날아간다. 자면서 수분을 보충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취침 전의 적당한 물 마시기는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주어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

2. 지성 피부도 물 많이 마시기

건성 피부만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피부의 기준은 수분이 아니라 유분이다. 유분은 충분한데 피부가 푸석하면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마셔 피부에 수분을 보충한다. 물을 꾸준히 마시면 피지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시끌벅적 e-스타

'놈놈놈' 패러디 동영상 인기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의 제목처럼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물론 이상한 사람도 있다.

군대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 멋진 놈, 이상한 놈 그리고 개념없는 놈!

영화 '놈놈놈'을 빗대어 만든 동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다. 군대에 있는 세 부류의 사람을 다룬 '놈놈놈' 동영상이 포털 사이트 다음에 등장해 네티즌의 시선을 끌고 있다.

어디를 가든 멋진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다. 칙칙한 군복에 가리어져 있어도 눈빛 하나로 모든 것을 제압하는 멋진 군인들이 있다. 혹독한 훈련으로 만들어진 섹시한 복근, 어디든 달려가 군인들의 힘을 발휘하는 불가능은 없는 멋진 사나이들. 이들은 '멋진 놈'들이다.

이상한 놈들도 군대의 한 축을 장식한다. 내무반을 개그 무대 삼아 침낭 속에 들어가 애벌레 흉내를 내거나 차력 등을 선보이기도 한다. 군대에 있는 모든 물건을 장난감으로 둔갑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상한 놈'들 이다.

많은 이들이 두려워 하는 개념없는 군인, '개념없는 놈'들도 존재한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잔다. 등 붙일 곳만 있으면 잔다.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잔다. 이들은 무시무시한 '개념없는 놈'이다.

다양한 개성의 사람들. 동영상 제작자는 이왕 하는 군생활이라면 '좋은 놈'으로 다녀오길 바란다는 멘트로 동영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 동영상은 특히 군대를 다녀온 네티즌의 관심 속에 2만여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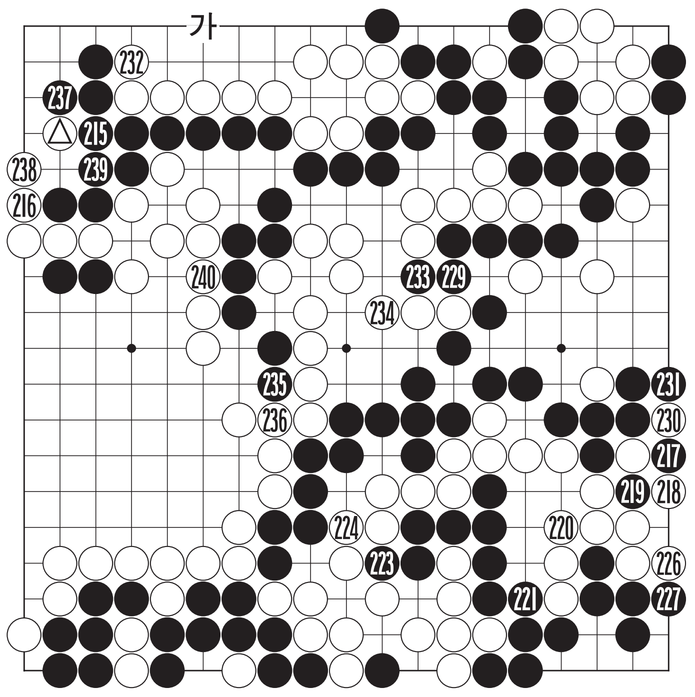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제17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바둑대회

아까운 실족

개인전 준결승 12보(215~240)

白 김영수 5단 (전남교사회) 黑 방재혁 5단 (창이유통)



좌변에서 벌어진 천지대패의 결과로 흑이 우상귀를 잡기는 했으나 백이 좌변에서 흑 두점을 계속 따내고 백 △까지 쳐들어간 것도 커서 이 패의 결과는 흑이 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흑이 좌변을 막지않고 그냥 우상귀를 잡은 것과 비교해서 훨씬 나쁜 결과가 된 것이다.

이것으로 바둑은 미세하나마 백의 승리가 굳어졌다. 끝내기 도중 흑 217로 우변에서 단수 친 것도 실수. 이곳은 어차피 백이 216으로 내려서는 수가 선수라 흑이 이 패를 이길 수가 없다. 217로는 상변 '가'의 곳을 달려야 했으며 그랬으면 차이를 좁힐 수 있었다.

흑 229로 중앙에 둔 수도 역시 상변 '가'에 달릴 찬스였다. 우물우물 하다가 백이 232로 상변을 막게 되어서는 백의 승리가 확고해졌다. 최후에 집을 지어보니 백의 3집 반 승. 크다면 큰 차이지만 끝내기에서 실수도 했고 해서 극히 미세한 차이였다.

방재혁 5단은 불리했던 바둑을 혼전으로 몰아넣어 극적으로 역전 일보 전까지 갔다가 그만 아깝게 실족하여 결승 진출에 실패하고 만다. 이후의 수순은 총보를 보자.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대한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RESORT / SINAN 엘도라도리조트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1일(음 8월 12일 甲寅)

子 36년생 모든 문제를 새롭게 점검 할 필요가 있다. 48년생 분수를 지켜라. 60년생 매사에 신중하고 규모를 축소하고 만족하라. 72년생 희망의 설계가 조성되고 귀인이 도래한다. 84년생 적시에 마무리하여 외형을 줄이라. 행운의 숫자 : 02, 32

丑 37년생 횡재는 바라지 말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라. 49년생 옛정으로 새로운 일이 나타난다. 61년생 새로운 만남이 생긴다. 73년생 자식간에 소사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85년생 아랫사람으로 인한 손재가 나타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3, 44

寅 38년생 희망의 소식은 들려오니 준비를 잘 하라. 50년생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좀 더 기다리라. 62년생 시기상조이니 숨을 돌리고 주변을 보라. 74년생 낯선 곳에 온 것 같으니 불편하다. 행운의 숫자 : 01, 31

卯 39년생 앞으로 불편사가 예상되나 흉사는 없다. 51년생 지갑을 조심하라. 63년생 시기상조이나 숨통이 터진 기분. 75년생 옛 친구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득재하리라. 행운의 숫자 : 18,43

辰 40년생 서로 다투며 나가니 좋을 수는 없다. 52년생 부친을 찾아 뵙고 문안인사를 드려라. 64년생 주변 이웃을 잘 살피면서 가야 한다. 76년생 시비를 가리는 송사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인내해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 04, 26

巳 41년생 마지막 마무리를 잘 정리해야 하리라. 53년생 모든 일이 어려우니 신중하고 내실을 기해야 한다. 65년생 시기상조이니 충분한 자기 사람을 확보해야. 77년생 우연한 좋은 기회를 포착하여 길사로 연결된다. 행운의 숫자 : 06, 35

午 42년생 큰 고통은 없다. 54년생 희망적 설계는 있으나 급진하지 않는 것이 좋다. 66년생 내용은 통한 듯하지만 이면에서 불씨가 움틀 수 있다. 78년생 아는 길도 물어서 가고 우선 만족에 들뜨지 말고 신중하라. 행운의 숫자 : 20, 16

未 43년생 잃은 자식 찾은 듯 기쁘나 허망할 수도 있다. 55년생 절대 신규사업에 참여치 말라. 67년생 옛 인연을 끊어서는 절대 안 된다. 79년생 산뜻한 새 맛으로 잠깐의 길사가 있으나 후일을 대비하라. 행운의 숫자 : 24, 41

申 44년생 새로운 희망의 설계가 있을 수 있다. 56년생 속전속결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이익이 생긴다. 68년생 가정이 안정되고 증식되는 경사가 있다. 80년생 신중하게 긴 안목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라. 행운의 숫자 : 10, 28

酉 45년생 될 듯 될 듯한 구상만 있고 낭설이 많으니 신중하게 처신하라. 57년생 중간인의 음모를 살펴보라. 69년생 집안이 뒤숭숭하니 침착성을 잃지 마라. 81년생 혹 남의 입에 오르내려도 관계치 말고 중정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2, 43

戌 46년생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계획이 성립되나 진행까지는 조기상조. 58년생 모든 외형을 실리위주로 바꿔라. 70년생 과욕은 금물이고 근친자간 동업은 불씨가 될 수도 있다. 82년생 독신자는 외출을 해보라. 행운의 숫자 : 13, 40

亥 47년생 길사는 적으니 하는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라. 59년생 원한 맺힌 미운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다. 71년생 마지막 속임수를 조심하고 변동하지 않는 것이 좋다. 83년생 자기 일을 뒤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19, 42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굿모닝 잉글리쉬 <1144>

That's crazy!

완전히 미쳤군

A : John is mad at you.
B : Why?
A : He said you never called him back last week.
B : That's crazy! I remember calling him four times!

A : 존이 당신 때문에 화가 잔뜩 나있어요.
B : 왜?
A : 당신이 지난주에 그분에게 전화를 주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B : 완전히 미쳤군.
분명히 네 번이나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는데.

* be mad at~ =~ 때문에 화가 나있다.
* 분명히 바닥을 청소했거든요.
= I remember cleaning the floors.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요우 니혼고 <1144>

はこれでおしまいにしましょうか。

이쯤에서 마칠까요?

A ：あ、疲(つか)れた。今日はこれでおしまいにしましょうか。
B ：そうですね。
A ：歸(かえ)りに一杯(いっぱい)どうですか。
B ：それはいいですね。

A ：아, 피곤하다. 오늘은 이쯤에서 마칠까요?
B ：그럴까요?
A ：퇴근길에 한잔 어떠세요?
B ：그것 참 좋은 생각이네요.

おしまい : 끝, 파함
一杯(いっぱい)どうですか : 한잔 어떠세요?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221>

你做什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A: 你做什么?
nǐ zuò shénme
B: 做功课,
zuò gōngkè
A: 功课多吗?
gōngkè duō ma
B: 很少。
hěn shǎo

A: 당신은 뭐하고 있습니까?
B: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A: 공부가 많습니까?
B: 매우 적습니다.

功课 [gōngkè] 공부, 수업
少 [shǎo] 적다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

한자 이야기 <861>

心廣體胖(심광체반)

마음 심, 넓을 광, 몸 체, 살찔 반

'심광체반'은 마음이 넓어지면 몸도 살찐다는 뜻으로, 마음이 넓고 너그러우면 몸도 편안함을 비유한다. 마음에 조금도 부끄러운 일이 없으면 외형도 화색이 돈다는 말이다.

이 성구는 대학(大學)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다. 이 문구의 앞 구절에 '부윤옥 덕윤신(富潤屋 德潤身)'이라는 말이 있다. 즉 재물은 집을 윤택하게 하고 덕은 몸을 윤택하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광체반은 덕(德)을 갖춘 결과인 셈이다.

덕은 마음의 넓음에서 나온다. 좁은 마음에서는 인색함과 시기·질투·편견들이 나올 뿐이다. 몸이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마음이 편안해야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 씀씀이를 넓게 하여 덕을 베풂이 우선이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마음과 몸의 관계는 밀접하다. 마음의 병이 곧 신체의 병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에 걸친 스트레스, 미움, 증오 들이 마음속에서 병으로 자라다가 어느 시기에 신체에 드러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병에 걸리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 '웰빙'을 찾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넓게 가져 '심광체반'을 이루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다.

〈한예원(韓睿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